

4/28/24

설교 제목: 나를 본받으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빌립보서 3 장 17-21 절

(빌 3:17)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빌 3:18)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 3:19) 그들의 마음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 3: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빌 3:21)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권면합니다.

(빌 3:14) 쫓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 3:17)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것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신앙적으로 완벽하니 본받으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신칭의,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과 완전한 성화를 위하여 정직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고전 11:1)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십자가 의만 확신하는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에 복음으로 인해 고난과 핍박을 받는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위해 목표를 향해 달릴 수 있었습니다.

이신칭의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며, 완전한 성화를 위한 정직한 달음질은 모든 성도들이 이땅에서 마땅히 행하며 살아야 할 경건하고 의로운 삶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본받는 자들, 곧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완전한 성화를 위해 달려가는 진실한 성도들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의 신앙 생활에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위로와 격려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아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빌 3:18)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주의 가치관에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십자가 속에 담겨 있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육체적 욕심과 욕망에 붙들려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땅의 것인 물질, 쾌락, 세속적인 성공만을 생각합니다.

당시 많은 유대 교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할례를 받고 율법을 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인간의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무효화시키는 일입니다.

이런 율법주의자들 곧 행위 구원론자들은 십자가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핍박하였습니다.

그들은 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은 초대 교회 이래 2천년 교회 역사 속에 늘 있어왔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과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과 싸워 복음을 사수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의 실체에 대해 언급합니다.

(빌 3:19)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먼저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계 19:19)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계 19:20)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 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계 19:21)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으매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적그리스도와 거짓 교사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대심판 전에 유황 불못에 던지워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정해진 운명입니다.

그들의 신은 배라고 합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욕심을 지적한 것입니다.

그들은 물질욕 정욕 명예욕 권세욕 등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이것들을 섬깁니다.

탐심에서 비롯된 것으로,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현재의 영광이 결국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의 현재의 영광은 실상 그들의 수치입니다.
마지막 날 그들에게는 큰 고통과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땅의 일'이란 세상의 것으로 썩어질 것, 허무한 것, 죄악된 것을 말합니다.

(요일 2:15)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요일 2:16)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일 2:17)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본받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빌 3:20)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어느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누리게 되는 특권과 혜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세계 최강국이자 최부유국이어서 많은 특권과 혜택을 받아 누리 수 있는 미국 시민권은 지금 세계 사람들이 획득하기 원하는 1 순위 시민권입니다.

같은 이유로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포함해 많은 이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길 원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그곳에 살고 있는 많은 로마의 퇴역 장교들이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온갖 특권과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로마의 시민권자임을 밝히자 그를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감옥에 가두었던 상관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행 16:35)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행 16:36)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행 16:37)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행 16:38)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행 16:39)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행 16:40)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언급하며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특권과 혜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영광과 특권이 있다는 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늘의 시민권을 획득한 성도들의 영광과 특권입니다.

먼저 신분면에서 엄청난 영광과 특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신분이 마귀의 자녀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에 따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구원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롬 8:15)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구원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칭의 (Justification) 단계, 성화 (Sanctification) 단계, 영화 (Glorification) 단계입니다.

칭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단계이고, 성화는 이루며 살고 있는 현재의 단계이며, 영화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이루어질 미래의 단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현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있으며, 장차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영광스러운 부활체의 몸을 입고 부활하여 영생함으로 구원이 완성될 것입니다.

성도는 천국 시민권자로서 자신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삽니다.

(계 22:20)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1)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날, 예수님은 당신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낮고 비천한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실 것입니다.

(빌 3:21)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신적인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될 완전한 구원의 영광과 축복입니다.

(고전 15:42)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전 15:43)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고전 15:44)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리고 그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후 3:18)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지금은 그 영광이 선명하지 않지만 그날에는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선명하게 주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바라보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일 3:2)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일 3:3)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일 3:4)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자신을 깨끗게 한다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각자 나라의 시민권자로 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하늘에 시민권자입니다.
지금은 너나 나나 모두 옆에서 비슷하게 살고 있어 차이를 실감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 오면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완전히 구별될 것입니다.
그날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지만,
하늘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영원한 유향 불못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구원을 받아 하늘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성화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 여정이 핍박과 고난으로 험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라도 굴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사도 바울을 본받아 이신칭의의 믿음을
가지고 위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세속의 가치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기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날, 세상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날,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광의 부활체로 부활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날을 기다리며 조용히 외쳐봅니다.